

# 순천시 식량산업종합계획 국가 승인

### 올해부터 5년간 국비 25억 확보 RPC 현대화·생산체계 구축 쌀·밭 식량작물 경쟁력 높이기

순천시에서 생산된 쌀 등 식량작물의 안정적인 생산 체계와 유통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순천시는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지역단위 식량산업 5개년 종합계획을 최종 승인 받았다고 밝혔다. 순천시에 따르면 농림부는 2018년부터 지자체 스스로 마곡과 밭 식량작물의 균형 있는 육성과 체

계적인 지원 계획을 마련토록 '식량산업종합계획' 수립 및 선정 평가 제도를 도입했다. 시는 지역단위 식량산업종합계획을 지난해 9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제출하고 현장 평가와 발표평가를 거쳐 올해 1월 농림축산식품부의 최종 승인을 받았다. 이에 따라 2024년부터 2028년까지 5년간 고품질 쌀 유통화, 식량작물 공동경영체 육성, 가루쌀 생산단지 육성 사업 등 국비 사업에 대한 신청 자격을 부여받게 됐다. 또 우선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는 등 각종 지원 혜택도 받는다. 시는 올해 DSC시설지원, RPC 시설현대화 등

고품질 쌀 유통화 사업으로 국비 25억을 확보했다. 이를 통해 안정적인 공공비축미 매입 및 수확 후 고품질 쌀 유통을 통해 순천쌀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 식량작물 공동(들녘)경영체 육성 사업을 통해 5개년 8개소에 국비 87억을 신청할 예정이다. 순천시 관계자는 "승인된 식량산업종합계획을 토대로 식량 산업의 전반적인 지원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며, 우리 지역에 맞는 발작물 전략 품목을 육성해 안정적 생산 체계를 구축하고, 농가 조직화 등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순천=김은중 기자 ejkim@kwangju.co.kr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구례 화엄사 '홍매화'.

## '구례 화엄사 화엄매' 천연기념물 지정 고시

###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 최종 가결

구례 화엄사 '홍매화'가 국가유산 자연유산 천연기념물로 지정됐다. 대한불교조계종 19교구 지리산 대화엄사 등에 따르면 화엄사 홍매화가 문화재청 천연기념물분과 문화재위원회에서 국가유산 자연유산 천연기념물로 최종 가결됐다고 28일 밝혔다. 홍매화의 천연기념물 지정 명칭은 '구례 화엄사 화엄매'다. 국가유산 사적이자 명승으로 지리산국립공원 1호에 위치한 화엄사는 국보 5점과 보물 9점을 비롯한 다수의 문화유산을 보유하고 있다. 이번 확대 지정에는 자연유산 천연기념물 노거수인 '구례 화엄사 울벚나무' 1주와 '구례 화엄사 매화' 1주도 포함됐다. 화엄사 홍매화는 3월 중순경 검붉은 화색과 두 줄기가 꼬인 수형으로 꽃을 피워 수많은 관광객이 찾는 나무로 국민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다. 수록

의 줄기나 가지의 생육이 굴곡을 만들면서 위로 또는 밑으로 자라는 형질을 가져 다른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매화나무들에 비해 학술적 가치가 높다.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4대 매화(순천 선암사 선암매, 강릉 오죽헌 울곡매, 구례 화엄사 들매화, 장성 백양사 고불매) 중 검붉은 꽃은 화엄사 홍매화 뿐이다. 김순호 구례군수는 "지역 관광의 효자 역할을 하는 화엄사 홍매화가 천연기념물이 된 것은 전 국민의 경사"며 "적극적인 홍보와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아름다운 자연유산의 소중함이 널리 알려지고 홍매화가 더욱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화엄사는 국가유산 천연기념물 지정을 기념해 '제4회 구례화엄사 화엄매' 프로사진 및 휴대폰 카메라 사진작가 콘테스트를 오는 3월 11일부터 4월 6일까지 개최한다. /구례=이진택 기자 lit@kwangju.co.kr



순천 별량면 이장 31명 임명장 순천 별량면 이장단이 지난 25일 올해 첫 회의를 가진 뒤 임명장을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별량면은 마을을 위해 봉사할 재입 26명, 신임 5명 등 총 31명에 이장 임명장을 수여했다. <순천시 제공>

## '브랜드 명예의 전당' 고흥군 6년 연속 수상

고흥군이 '2024 대한민국 브랜드 명예의 전당' 공공기관 귀농귀촌도시 부문에 선정됐다. 2019년부터 6년 연속 수상이다. 산업정책연구원(IPS)이 주최하는 대한민국 브랜드 명예의 전당은 전국 지자체와 기업의 브랜드를 대상으로 경영 실적, 브랜드 가치, 고객만족도, 마케팅·커뮤니케이션 등을 평가해 수상자를 선정하고 있다. 고흥군은 귀농어 귀촌 유치실적, 귀농귀촌 행복학교 운영, 도시로 찾아가는 귀농귀촌 설명회 개최, 전문요원이 상주하는 귀농어·귀촌인 사후관리 모니터링 추진 등 다양하고 차별화된 정책들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분석했다. 공영민 고흥군수는 "귀농귀촌 1번지로서의 자부심과 책임감을 갖고 고흥 인구 10만명의 기반 구축을 위해 군민과 함께 힘찬 여정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고흥=주각중 기자 gjuu@kwangju.co.kr

## '광양형 24시간 돌봄어린이집' 10월부터 운영

시민 의견 2월 29일까지 접수 2000원이다. 광양시에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되어 있는 부모 또는 법정 보호자의 6개월 이상 5세 이하의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며,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이용에 관계없이 필요한 시간만큼 이용할 수 있다. 광양형 24시간 돌봄어린이집은 가정에서 필요한 시간만큼 이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시간제 보육 서비스와 유사하다. 연령 기준과 운영시간을 확대하고 이용료를 낮춰 양육 공백 발생 시야간을 비롯해 주말, 공휴일 언제든지 필요한 시간만큼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시는 이로써 현행 보육제도의 미비점 보완과 다양한 보육 서비스 제공 등을 통해 아이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양육 부담을 덜어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조성에 한발 나아갈 것으로 전망했다. 정인화 광양시장은 "태아기부터 노년기까지 촘촘하고 두터운 일련의 복지체계를 마련해 민선 8기 추진 전략 중 하나인 '광양형 생애 복지 플랫폼' 구축을 통해 일류 복지 도시 조성을 실현해 보이겠다"고 말했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kwangju.co.kr

## 곡성군 '나홀로 청년 월세' 연 120만원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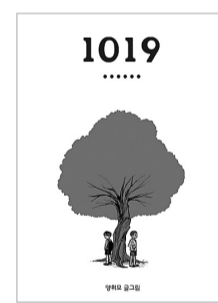
곡성군이 혼자 거주하고 있는 지역 청년들의 월세 주거비를 최대 120만원 지원한다. 곡성군은 지역에 혼자 거주하며 월세로 살아가는 청년에게 최대 월 10만원, 12개월간 주거비를 지원한다고 28일 밝혔다. 청년의 경제적 자립 기반 구축과 안정적인 정착을 돕기 위해 추진한 이번 사업 대상자는 19세 이상 49세 이하 청년이며 29일부터 모집한다. 곡성지역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하며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150%(334만2668원)이하라면 신청이 가능하다. 1년분 월세를 한번에 납부한 청년도 신청이 가능하지만 기존 사업 선정자, 유사 주거사업 혜택을 받고있는 청년 주택 소유자, 직계 가족 소유의 주택을 임차한 청년, 주거급여 대상자는 제외된다. 모집인원은 30명으로 예산이 소진되면 마감된다. /곡성=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 여수시, 여순사건 배경 웹툰 제작·배포

여수시가 여수-순천 10·19사건(이하 여순사건)의 역사적 중요성과 유족들의 아픔을 담은 웹툰 '1019.....'(사진)를 제작·배포했다. '1019.....'는 여순사건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기획, 기존의 역사 교과서 같은 틀을 벗어나 하나의 이야기 속에 여순사건을 담아낸 웹툰이다. 기존 성인 작가 위주의 제작과 달리 여수에서 활동하는 청소년 작가가 직접 참여했다. 웹툰에 참여한 청소년 작가 양휘모는 지역 봉사

단체와 함께 다양한 전시 활동을 통해 여순사건을 알리는 데 기여하고 있다. 시는 누구나 접할 수 있도록 여순사건 아카이브(yeosu.go.kr/yeosun1019/)에 게시했으며, 책자도 제작해 공공도서관, 학교에 배포했다. /여수=김창화 기자-동부취재본부장chkim@



**"데크의 세대교체!"**

불에 타지 않고 물에 썩지 않는  
**논슬립 디자인데크**

중소벤처기업부  
성능인증

품질인증  
Q-Mark

기존데크

고강도 디자인데크

습기의 의한 부식, 번거로운 유지관리  
기존데크 철거 후 디자인데크 시공  
국산 원재료사용으로 경제적이며  
재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데크!

프론티어벤처 KIBO 1509001  
**휴먼이엔티주식회사**

문의 전화 **1644-6430**

천안본사 및 공장 |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망향로 903-6(오목리9)